

ISO TC 122/SC 4 친환경 패키징 국제 규격 제정



심진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 센터장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업화에 의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생산과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후변화, 오존층의 고갈, 해양오염, 사막화 등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최근 기업에서도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분야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패키징 분야에서도 패키징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패키징 재료의 재활용 및 회수를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산학연 및 NGO등과 함께 친환경 포장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연구 수행을 통하여 친환경 포장과 관련한 유럽의 표준 규격인 EN13427~EN13432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 규격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일본에서도 유럽의 친환경 포장규격이 자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자국의 친환경포장 설계 표준화 및 국제 환경규격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친환경 포장 규격과 함께 포장재의 유기적 회수와 위험물질 함유량에 대한 규격을 포함하는 자체적인 포장 규격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의 친환경포장에 대한 기술적 수준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진규격이 국제규격으로 될 경우 산업전반에 피해가 우려되어 선진국의 친환경 표준규격을 분석하여 친환경 포장용어 및 친환경포장재에 관한 국내규격을 2008년에 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각국의 친환경 포장에 대한 관심과 규격제정의 노력 속에 친환경 포장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위한 움직임이 2009년 제1회 스웨덴 회의를 시작으로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국제 표준 작업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ISO/TC 122/SC 4 친환경 포장(Packaging and Environment) 위원장과 각 Working Group의 Convener(CV) 및 Project Leader(PL)를 선출하였다. 이후 중국 북경과 일본 동경, 미국 애틀랜타에서의 회의를 통하여 각 Working Group별 규격을 제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에서는 지난 5월21일부터 24일까지 COEX 컨퍼런스룸에서 친환경 패키징 분야의 제5차 ISO TC122/SC4 서울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서울 회의에는 한국, 중국, 영국, 미국,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이태리 등 9개국 총54명이 공식적으로 참석하여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금번 회의를 통하여 친환경 패키징 규격 사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감용 및 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유기적 회수에 대한 세계 표준 6개 규격 제정이 확정되었으며, 유기적 회수 분야와 화학적 회수 분야는 TR(기술보고서)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제안한 친환경 포장용어(WG1) 분야와 친환경 포장 마크(WG8) 분야에 대하여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향후에 Convener 및 Project Leader 선정 등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